

### ‘천성산’ 어떻게 되나

지을 스님은 지난 6월 30일 제3차 단식정진을 시작했다. 고속철도 공단이 천성산 구간 공사를 강행하려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천성산의 모든 생명을 구하려는 스님의 의침은 단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서히 알려졌고, 마침내 단식 58일째인 8월 27일 스님의 생명이 경각이 이르면서 ‘법원 판결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검토를 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을 스님이 그동안 벌여온 ‘천성산 살리기’ 운동이 얻은 성과와 과제 등을 종합해 본다.

## 재판 판결까지 공사중단 · 전문가 재검토

**■단식 배경 및 진행과정**  
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원효터널, 총 13.5km) 건설을 놓고 벌어진 ‘천성산 문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속철도 공단은 부산-대구간 고속철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부산·경남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속철도 공단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터널 공사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02년 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을 스님은 처음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고속철도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당시 ‘산갈’ 소인을 맡고 있던 지을 스님은 “수달, 팔색조 등 천연기념물 11종과 환경부 보호야생동물 19종, 특별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제치늪 등 22개의 늪을 보유한 천성산이 환경영향평가 최하등급인 8-9등급으로 분류돼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스님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공약으로 고속철 천성산 통과를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03년 3월에는 노선검토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천성산 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노선검토협의회 운영은 파행을 거듭했다. ‘천성산 문제’의 당사자인 지을 스님의 의견은 철저히 협의회에서 배제됐으며, 노선검토협의회는 1달 만에 현행 노선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2003년 3월 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38일간의 단식정진을 벌인 지을 스님은 이제 8월경부터 다시 45일간의 제2차 단식, 40일간의 1천배 정진, 부산역부터 천성산 정상까지의 삼보일배 정진을 했다. 2004년 초 지을 스님은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도롱뇽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심리 중에 있다.

**■무엇을 얻었나?**  
이번 단식 정진의 직접적 성과는 청와대·건설회사와의 공사중단 약속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들과 불교계, 시민·환경단체들은 재판 판결에 승복한다는 전제 아래 고법 판결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지을 스님은 단식을 회항키로 8월 26일 합의했다.

이로서 불교계는 천성산 관광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를 동원한 재검토와 도롱뇽 소송 승리를 위한 100만인 서명인단을 모을 여유 시간을 얻었다. 노 대통령의 공약파기와 문제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약속 위반에 대한 사과를 받은 것도 성과중 하나다.

그러나 지을 스님의 급격한 건강악화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재조사 작업을 벌이기 위해 필요한 ‘6개월 동안의 공사중단’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과제와 전망**  
이제 남은 것은 도롱뇽 소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천성산 구간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확실하게 실시해야 하며 소송 승리를 위해 100만인 서명인단을 모아야 한다. 전문가

검토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100만인 서명인단 모집은 천성산 문제와 관련한 여론의 압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재판이 앞당겨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는다면 다시 한번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환경단체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문제다. 노선검토협의회 활동을 거지면서 환경단체 상호간의 골이 깊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내야만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 활동도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생명살림의 가치관과 대안을 발견해 낼 필요도 있다. ‘천성산 문제’가 초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국민들의 눈에 맹목적인 반대로 비쳤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환경 파괴가 국민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하며 거대 국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 생명사상’의 논리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천성산은?**  
양산에 위치한 천성산(해발 922m)은 특별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제치늪을 비롯해 말발늪 화양늪 등 22개의 습지가 흩어져있는 한국 최대의 습지 지대다. 봄에는 철쭉꽃이 만발하는 4km의 내원사 계곡 등 아름다운 절경을 가지고 있다. 원효 스님이 화엄법에서 1천여 종의 스님들에게 법을 베풀어 득도하게 했다 해서 ‘천성산(千聖山)’이라고 불린다. 2002년 천성산에 터널을 뚫는 ‘원효터널’ 공사를 시작하면서 ‘천성산 문제’는 시작됐다.

김유신 기자

### 24일 타계 서돈각 불교진흥원 이사장 행장

## 평생 재가불교운동 헌신



서돈각 이사장 영결식이 8월 27일 동국대 불상 앞에서 동국대장으로 거행됐다.

서돈각(徐燾珪)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평생을 불교 포교에 전념해왔다. 서 이사장은 1929년 10세때 신문에 난 관세를 보살상을 보고 그때부터 성냥갑에 모신뒤 매일 108배를 드리기 시작해 타계하는 날까지 수행을 계속했다. 평소 자택에 불단을 모셔놓고 매일 새벽과 저녁 예불을 올릴 만큼 신심이 깊었으며, 금강경 독송을 평소 수행으로 삼았다.

1920년 11월 3일 대구에서 출생한 서 이사장은 일본 경도제국대학 법학부, 경성대학교(서울대학) 법문학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Southern Methodist대학에서 법학석사, 경희대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50년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故 황산덕 박사와 함께 법불회를 결성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서울대 불교학술회 지도교수, 대불연 지도위원장과 고문 등을 맡으며 대학생 불자육성에 큰 자취를 남겼다.

60년대 탄허 스님, 해안 스님,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을 비롯한 선지식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참선수행에 매진했다. 특히 69년 “재가불자들이 수행해야 한국불교의 희망이 있다”며 서울 성북동 보문사에

해안 스님을 모시고, 재가불자 참선수행 열기도 했다.

1972년부터 74년까지 동국대 총장, 79년부터 81년까지 경북대 총장을 역임하며 학교 행정가로 모범적인 운영을 했다.

92년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에 취임해 불자들의 신생활을 적극 지원했고,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동국대와 불교방송 이사로서 학교 및 언론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95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도급인사들이 모여 창립한 한국불교 재가회의 상임의장을 맡아, 도덕 환경 통일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재가 결사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서 이사장은 88년부터 92년까지 학술원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서 이사장은 법학을 비롯 한국학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등으로 국민훈장 모란장, 법률문화상, 보현문화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상을 수상했다. 선불교 해설서인 <선학의 황금시대>를 비롯 전공인 상법 분야에서는 ‘신고상법’ ‘상법요론’ ‘신(新)주식회사법의 기본문제’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김원우 기자

### ■진흥원 이사장 어떻게 뽑나

서돈각 이사장의 타계로 한국불교발전의 견인자를 담당하고 있는 불교진흥원의 이사장 선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 중 최고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수행하며, 빠른 시일내 새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연장자인 홍승희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홍승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사회를 소집해 새 이사장을 뽑는 수순을 밟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 새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회가 호선 방식으로 추대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사장 임기는 4년이다.

현재 진흥원 이사는 홍승희, 배병민, 김표진, 송석구, 장상근, 명호근씨등 6명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야 이사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고, 이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끝까지 ‘희망’ 버리지 않겠다”

### 인터뷰

#### 지을 스님

**▲합의내용에 만족하나?**  
—올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천성산 공사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가 국회에도 상정됐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개정 의사를 밝혔다. 합의 결과가 크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제 우리들의 몫이 많이 남은 셈이다.

**▲단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50일이 넘어서도 청와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때 좌절감을 많이 느꼈다. 정부가 민의에 귀 기울일 의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또

우리들은 이전에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환경부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의 차를 줄이는 부분이 어려웠다.

**▲단식 중 환경운동연합과 조계종에 서운함을 비치기도 했는데?**  
—천성산 문제로 환경운동연합과 조계종 총무원이 자정의 계기가 됐으리라고 본다.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또 다른 눈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항소심에 대한 전망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할 경우 지질 분야 등에 우리가 필요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전문가를 섭외할 계획도 있다.

**▲방법이 극단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수행자가 중도를 걷지 못한 다’는 비판도 있지만 내 감정에 솔직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운동하면서 선악의 관점에서 운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달은 도롱뇽 소송 100만인 서명운동에 뛰어들고, 다른 한달은 생명연대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며, 나머지 한달은 생태학습 등을 통해 천성산 생명을 일리는데 노력하고 싶다. 특히 새만금 문제 등 생명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과 연대해 영상과 인터넷을 통한 ‘생명공명’을 하고 싶다.

남동우 기자



58일간의 단식 정진을 마치고 동국대 강남한방병원에 입원한 지을스님이 8월27일 미음을 먹는 모습. 사진:박재민 기자

www.seonbonsa.org



## 갯바위(禪本寺) 유리광전삼천불 봉안 불사 모연문

<<약사여래본원공덕경(藥師如來本願功德經)>>에 따르면 약사여래는 보살도를 닦을 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열두 가지의 거룩한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질병과 고난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갯바위 부처님을 찾는 것은 바로 갯바위 부처님이 약사여래로서 이같은 영험함과 신비함이 오늘에 이르러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제1의 기도 성지(聖地) 선본사 갯바위에서는 개산(開山)1400여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옛부터 내려온 선종을 본받아 팔공산 갯바위 지역을 신앙의 영장(靈場)으로 성역화(聖域化)할 것을 천명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갯바위 유리광전에 삼천불을 모시는 원불전(願佛殿) 조성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이는 탐진치 삼독을 뛰어 넘어 영원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중생을 위한 일진대 지극한 염원으로 기원하면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그 영험의 자비광명을 우리 곁으로 나누시게끔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자 합니다. 금번 갯바위 약사여래를 삼천불 봉안 불사에 기쁨으로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성취하시고 무애자재한 삶을 자손만대에 계승할 것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 한가족 한 부처님 : 100만원
- 일시납 및 월납 · 분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참 온라인 계좌 : 농협 725075-51-02059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갯바위)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번지  
선본사 : 053)851-1868 / 갯바위 : 053)851-1869 / 팩스 : 053)853-7537  
(기부금 납입증명 영수증을 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갯바위)